

Special

주목 받고 있는 인기 북셀프 스피커 집중 시청 Part.2

뛰어난 해상력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자연스러움

Wilson Benesch Trinity

글 이현모



수입원 : 캄피아 (02)717-4274

· 가격 : 960만원 · 구성 : 3웨이 3스피커 · 인클로저 : 베이스 리플렉스형 · 사용유닛 : 우퍼 17cm, 2.5cm 소프트 돔, 골드 플레이트 세라믹 돔 어드밴스 트위터
· 재생주파수대역 : 40Hz-100kHz(-6dB), 45Hz-80kHz(-3dB) · 임피던스 : 6Ω, 4Ω (최소) · 출력음압레벨 : 89dB/2.83V/m · 파워 핸들링 : 200W
· 크기(WHD) : 23,5×33,5×30cm, 108cm(스탠드) · 무게 : 32kg

월슨 베네시는 영국의 오디오 업체이다. 재미있는 것은 월슨 베네시가 창업자의 이름이 아니라, 1989년에 월슨 베네시라는 사람이 영국 상공회의소에 2만5천 파운드를 기부하면서 이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카본 파이버 소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턴테이블과 스피커 제품을 개발해오고 있다.

필자가 시청한 트리니티는 북셀프의 외모를 띠고 있는 3웨이 스피커이다. 트리니티(Trinity)란 기독교의 교리에 나오는 '삼위일체'라는 용어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단일 신성 안에서 하나라는 뜻이다. 트위터·미드·우퍼가 작은 인클로저 안에서 일체화되어 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다.

트리니티의 전체 외형은 특수 합금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카본 파이버 전문 업체답게 사이드 패널을 카본 파이버로 마감했다. 이 스피커와 일체화되어 따라오는 전용 스탠드는, 그 뒷면에 스피커 터미널이 장착되어 있다. 이것은 스피커 본체와 네트워크를 가능한 멀게 떨어뜨린 것으로, 스피커가 만드는 진동의 나쁜 영향을 크로스오버 회로에 덜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음향적 특성을 고려하여 뒤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만곡을 이룬다.

트리니티의 이름대로 3개의 유닛으로 구성된 3웨이 스피커는, 유닛이 모두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 대략 40Hz까지 내려가는 7인치 미드는 독자적인 CNC 성형과 특수 자석으로 제조했다. 특이한 것은 일체의 크로스오버를 거치지 않는다. 20kHz까지 담당하는 트위터와 100kHz까지 올라가는 슈퍼 트위터 또한 1차 크로스오버로 끝난다.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거치지 않거나 덜 거치는 이유는 월슨 베네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고성능 유닛들이 개발되었고, 그 성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트리니티의 아랫면에는 2개의 포트가 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게 스피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또한 사용자를 배려한 점이라고 보인다. 트리니티가 사용자를 배려한 또 하나의 미덕은 감도가 89dB이나 되기에, 웬만한 인티앰프로 충분히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능한 저출력으로 구동하기 좋은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이기 때문이다.

월슨 베네시의 북셀프형 트리니티 3웨이 스피커에 대한 사전 예비 조사를 이 정도로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청에 임했다. 소스 기기는 마란츠 KI-펄 SACD 플레이어, 앰프는 패스 INT-30A 인티앰프를 사용했다. 이 정도의 기기들이면 충분히 트리니티 실력을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기들이 어느 정도 예열이 된 후, 몇 가지 음반을 걸어보면서 스피커의 간격을 조절하여 음상을 더 정밀하게 조정한 후 본격적으로 시청에 임했다.

먼저 최고의 기교파 피아니스트 마르크-앙드레 아믈랭이 연주하는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제2번 3악장 장송행진곡(Hyperion)을 들어보았다. 상당한 해상력을 바탕으로 맑은 피아노 음이 나온다. 음 하나하나의 표현력이 좋으면, 강력한 타건의 표현 또한 좋다. 스피커 사이로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하는 아믈랭을 충분히 그려내기에 감상자가 음악에 몰입하게 만든다.

러시아의 젊은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 '위대한 예술가를 회상하며'(Erato)에선 마치 현악기들의 음색과 질감이 자연스럽게 묘사된다. 마치 차이코프스키의 슬픔을 대변하는 듯 처음부터 흐느낀다. 전체적인 음악적 분위기 묘사가 탁월하다.

조수미가 부른 비발디의 '이 세상에 참 평화 없으랴 RV630' 중에 나오는 '라르게토'(Warner Classics)에서 저음 현악기의 반주는 생생하게 표현된다. 조수미의 목소리 역시 자연스럽게 싱싱하게 들린다.

첼리비다케가 지휘하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EMI) 제4악장 합창부분에서는 시작 부분의 관현악의 막강한 타격감과 큰 규모의 무대, 정밀한 악기 묘사 등이 돋보인다. 솔로 가수의 목소리는 생생하게 들리며, 합창단의 목소리들도 세밀하고 자연스럽게 들린다.

이렇게 몇 가지 음반으로 월슨 베네시의 북셀프형 트리니티 3웨이 스피커를 들어보니, 뛰어난 해상력, 자연스러움을 장점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비록 북셀프형의 스피커로서는 상당히 고가이지만, 가격을 떠나서 상당한 실력임을 알 수 있다. 하이엔드 스피커에 요구되는 해상력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스피커 시스템이 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때, 트리니티는 이 기본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본다. 이런 해상력이 기본이 될 때, 정숙함·자연스러움·질감·표현력 등이 구현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트리니티 스피커는 하이엔드 스피커로서의 기본을 제대로 갖춘 하이엔드 스피커라고 본다. 하이엔드 오디오가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음의 재생이라고 할 때, 트리니티는 그런 하이엔드 오디오의 목표에 더 가까이 간 스피커 시스템이라고 본다. **A**

